www.SangPlant.co.kr
사랑하는 분에게! 부드러운 선물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호계동 밸 사이드, 맨션 홈타운 2층 홈구입

佛敎新聞

향은 고요한 마음의 벗이 되어 드립니다.
www.cwb.co.kr 천운향랑
1960년 1월 1일 창립 주간 발행

불기 2556년 9월 15일(음력 8월 1일) 제1,848호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3 제2848호 토

"종교는 인류를 밝히는 에너지"

5000여명 '제16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운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기쁘다고" (가수 캐이윤)

"국민 모두 웃나가 된 것 같은 축제였습니다." (현정화 씨, 개신교)

"동화사 불법 사찰을 접하고 안타까웠는데 이런 갬사가 열려 또 깊어요" (박수경 씨, 무교)

종교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제16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사흘 도심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자승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국내 7대 종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개최했다.

'생명·평화·나눔·사랑' 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대표의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들은 손을 맞잡고 친선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표의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저 참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존재를 밝히는 에너지"라며 "앞으로 종교간 교류와 이해를 넓어 갈등을 사상하고 정신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회광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종교계는 화합의 마당을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왔다"며 "종교문화축제가 종교인들이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평화와 그림고 그림다" 등 히트곡을 불러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앞서 오전부터 5시까지 각 종단별로 사진 전시와 체험관을 통해 종교의 특색과 문화를 소개했다. 연꽃 양초공예, 십자가 전시, 목주 만들기, 독립선언문 인쇄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의 시민들은 "한 국은 행사 였다"고 입을 모았다. 발과 함께 왔다는 김윤미(서울 중구) 씨교사는 "모든 종교가 한자리에 모였다"며 "서로 서주 만나며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호 씨(서울 종로구, 가톨릭)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람도 쐬고 평소 존경하는 분들 시도지사들을 한꺼번에 만나 안장하여이었다"고 말했다. 신 씨의 부인인 임태연(예배는 결혼이주여성)씨도 "가족들과 함께 애 기분 좋은 하루 였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 간 화합과 국태를 증진시키고자 1997년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여해 심정했다.

홍다영 기자 hong01@bulgyo.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4시부터 8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교계 대표의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박수를 치는 장면. 신재호 기자 sin3010@bulgyo.com

9월17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문제 해결위한 10만배 정진 시작된다

지난 8월22일 발족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혼조스님)가 노동계 핵심 현안인 쌍용차 노동자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장정에 나선다. 노동위원회는 "쌍용차 문제 해결과 관련 조계종 노동위 출범을 계기로 불교계에 거듭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불교계 내부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불교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제1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종교계 대표의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박수를 치는 장면.

조계종 노동위원회
100일간 1000배 예정

불교계 해법 모색
구체적 시업 추진

참가 해고자 가족
템플스테이도 개최

해고 불교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쌍용자동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10만 배 기도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0만 배 기도는 오는 17일부터 12월25일까지 노동위원회 스님들과 각계 근로자 들이 총 100일 간 매일 1000배씩 절을 올리는 형식이다.

입재는 9월17일 오후 2시이며,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100일 동안 이어진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노동자 불교 실천위원회 조직위원장 혜원스님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에 30보 이상 왕동안 자이다. 불교대장 후보자 추천과정는 교구본사 주지나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등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우편(금일 우체국소인 유효)과 방문 접수로만 받는다.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2주전 불교신문 및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시상은 11월중 한국불교지사문화기념관 지하1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갖는다.

이태동 기자 bbyed@bulgyo.com

9월17일 서울 대한문 앞에 개최되는 이번 기도는 "쌍용자동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10만 배 기도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0만 배 기도는 오는 17일부터 12월25일까지 노동위원회 스님들과 각계 근로자들이 총 100일 간 매일 1000배씩 절을 올리는 형식이다.

입재는 9월17일 오후 2시이며,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100일 동안 이어진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노동자 불교 실천위원회 조직위원장 혜원스님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에 30보 이상 왕동안 자이다.

불교대장 후보자 추천과정는 교구본사 주지나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등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우편(금일 우체국소인 유효)과 방문 접수로만 받는다.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2주전 불교신문 및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시상은 11월중 한국불교지사문화기념관 지하1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갖는다.

이태동 기자 bbyed@bulgyo.com

교리경시대회…'도전, 법종'…문화공연

미래불교 주역을 어우러진 대동한마당

'나란다 축제' 로 자리매김하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실시된 불교교리경시대회가 4회째를 맞아 '나란다 축제'로 발전하였다. 올해는 일반인가족 영역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 8일 광릉대에 개최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동국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업장에서 교리경시대회를 진행했다.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을 거쳐 선발된 255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법종을 들려라' 결선대회는 이날 오전9시부터부터 동국대 체육관에서 실시했다. 결사대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종정의원 대오스님, 동련 이사장 심산스님 등이 동참해 '미래 불교의 주역'들을 응원했으며 법종은 보신사 이런 이끔 양용성이라만 양이 울렸다.

올해 처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리경시대회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6개팀 192명이 참가한 일반부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키즈대회로 진행했다. 3명이 한 팀을 이뤄 출전한 키즈대회에서는 조계사 불교대학 학생은, 전홍련, 이순재 씨가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시합을 마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문장마당도 4시간에 걸친 동국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문화마당에서는 비보이와 조계사학생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조계종 직할교구 후원으로 열린 제기 만들기, 레이모우터트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는 명사가 펴보다.

▶전문기자 기전

경시대회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초중등에게는 200만원, 고교생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동국대학교 진학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10월13일 오후2시 한국불교사문장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안혁수 기자 ahn@bulgyo.com

제24회 포교대상 공모
9월17~28일 후보 접수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는 포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광스님)은 제24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포교대상 추천분야는 계층(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직능(군 경찰 직장인 등), 문화매체(미술 건축 음악 문학 방송 연예 스포츠 등), 사회(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매체(방송 언론 출판 인터넷 등) 포교 등이다.

시상은 포교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후보자 추천대상은 종단의 스님 및 재가불자로 5년 이상 단체 공력 보여서 활동한 지우 사람 및 단체이다. 종단소속 사람 및 단체는 종단 등록 및 설립경과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가불자는 종단산모등록을 원자 자이며 포교대상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30보 이상 활동한 자이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과정는 교구본사 주지나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등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우편(금일 우체국소인 유효)과 방문 접수로만 받는다.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2주전 불교신문 및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시상은 11월중 한국불교지사문화기념관 지하1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갖는다.

이태동 기자 bbyed@bulgyo.com

'각은 없는 김동의 드라마' 패럴림픽 6면
전대월 박사 '아파트와나라-역사여정' 출간 9면
[기획] 불교계 위통기종 운동의 현주소 13면

제2회 전국금강경 강송대회…15일 마감
www.geumgang.org · (02) 445-6484